

[신약 속 미로 찾기] 점성술을 믿어도 될까요?

권준 목사 / 1998 / 페이지수: 1

마태복음 2장에 보면 동방박사들이 “그의 별을 보고 경배하러 왔노라”하는 말이 나온다. 이 동방의 박사들은 사실 그 시대 동방, 즉 페르시아나 바벨론에 널리 퍼져있던 점성술, 즉 별을 보고 점을 치던 자들이었다. 그런데 이들이 유대인도 깨닫지 못하고 있던 메시아 즉 유대인의 왕의 탄생을 별을 보고 알아내고 예를 표하러 먼 길을 달려온 것이다. 그렇다면 점성술은 믿을 만한 것일까?

우리는 먼저 왜 유독 마태복음에만 이 동방박사에 관한 기록이 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마태복음은 가장 유대인적인 복음이다. 그러나 그 안에는 노골적으로 예수님을 반대하고 적대시하는 유대인들에 관한 부분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다. 예수님의 탄생 기록에서도, 헤롯왕이나 그 외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감지조차도 못하였으나 정작 그들에게 메시아의 탄생을 알려준 것은 우상을 섬기며, 별의 움직임을 보며 점을 쳐서 앞날을 내다보는 이방의 술사들이었다.

마태는 이러한 극적인 대비를 통하여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서는 버림받았으나 이방인들은 믿음을 보여주었음을 여러 번 강조하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점성술은 믿을 만하며, 하나님은 지금도 별자리의 움직임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신 것일까? 물론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 자연을 통하여서 즉 이방인들이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을 통하여서 이방인들에게도 메시아의 탄생을 알려 주신 것뿐이다. 이것은 여호와가 나귀의 입을 열어 사람의 말로 발람에게 항변하게 함과 같은 이치다(민 22:28). 그 박사들은 그 별의 현상을 보고 믿었고, 예물을 준비하여 먼 거리도 마다하지 않고 탄생하신 왕에게 경배하러 찾아왔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해석한 것은 아니었다. 그들 생각에 왕은 수도인 예루살렘에서 탄생하였을 것이라고 짐작하고 그곳으로 왔었다.

하나님은 어떠한 방법으로든 누구에게나 말씀하실 수 있다.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불신자들에게도, 하나님을 무시하는 무당이나 점성가들에게도 필요하다면 말씀하실 수 있다. 물론 그 결과는 그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는 것이지 절대로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용한 점쟁이가 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에게 별점 치는 자나 박수무당을 찾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고,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뜻을 직접 말씀하여 주시기 때문이다. 그것은 어떠한 점성술도 따라 올 수 없는 것이며, 나만의 독특하고 개인적인 하나님의 뜻이기에 다른 사람 누구도 알 수 없는 비밀한 것이다.

앞날이 두렵고 궁금하면 하나님께 직접 여쭙어 보자.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점술가들에게도 알려 주셨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기 않을까? 물론 이 방법이 여러모로 헛수고를 피하는 방법임은 말할 것도 없다.

* 출처 : 온누리신문